

SNU SCSC + WaffleStudio 스터디

Week 9: Concurrency, Part 2

Chris Ohk

utilForever@gmail.com

목차

SNU SCSC + WaffleStudio 스터디
Week 9: Concurrency, Part 2

- 변경할 수 있는 공유된 상태

변경할 수 있는 공유된 상태

SNU SCSC + WaffleStudio 스터디
Week 9: Concurrency, Part 2

- 양치식물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이번에는 8명의 플레이어가 가상의 쥐라기 시대를 배경으로 현실과 거의 똑같은 기간 동안 양치식물을 키우며 경쟁하는 멀티 플레이어 실시간 전략 게임을 만드는 중이라고 하자.
- 이 게임의 서버는 많은 스레드에 요청을 쏟아붓는 대규모 병렬 애플리케이션이다.
이들 스레드를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 8명의 플레이어가 곧바로 게임을 시작할 수 있을까?
- 여기서 풀어야 할 문제는 많은 스레드가 게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플레이어들의 공유된 목록에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데이터는 모든 스레드가 변경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Rust가 변경할 수 있는 공유된 상태를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

- 양치식물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1) 해당 목록을 관리하는 일만 전담하는 새 스레드를 만드는 방법
이때 다른 스레드는 채널을 통해서 이 스레드와 통신하게 된다.
물론 이 방법은 스레드를 하나 더 쓰는 셈이니, 이로 인한 약간의 운영체제 오버헤드는 감수해야 한다.
 - 2) Rust가 변경할 수 있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도구를 쓰는 방법
스레드를 다뤄 본 시스템 프로그래머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을 법한 저수준 기본 요소를 사용하면 된다.
- 지금부터 뮤텍스, 읽기/쓰기 락, 조건 변수, 원자적인 정수를 다룬다.
끝으로 Rust에서 변경할 수 있는 전역 변수를 구현하는 법도 살펴 본다.

뮤텍스란?

SNU SCSC + WaffleStudio 스터디
Week 9: Concurrency, Part 2

- **뮤텍스(Mutex)** 또는 **락(Lock)**은 특정 데이터를 여러 스레드가 필요로 할 때 강제로 번갈아 가며 접근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쓴다.
 - Rust의 Mutex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 먼저 다른 언어에서는 어떤 식으로 다루는지 알아 보자.
 - C++에서는 뮤텍스를 다음과 같이 쓴다.

```
● ● ●  
  
// C++ code, not Rust  
void FernEmpireApp::JoinWaitingList(PlayerId player)  
{  
    mutex.Acquire();  
  
    waitingList.push_back(player);  
  
    // Start a game if we have enough players waiting  
    if (waitingList.size() >= GAME_SIZE)  
    {  
        vector<PlayerId> players;  
        waitingList.swap(players);  
        StartGame(players);  
    }  
  
    mutex.Release();  
}
```

뮤텍스란?

SNU SCSC + WaffleStudio 스터디
Week 9: Concurrency, Part 2

- 뮤텍스가 유용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 뮤텍스는 **데이터 경합(Data Race)**, 즉 바쁘게 돌아가는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같은 메모리를 읽고 쓰는 상황을 방지한다. C++과 Go에서는 데이터 경합이 정의되지 않은 동작이다. Java와 C#에서는 크래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지만, 데이터 경합의 결과가 (종합적으로 볼 때) 무의미한 건 마찬가지다.
 - 설령 데이터 경합이 없다고 하더라도, 또 읽고 쓰는 작업이 전부 프로그램 순서에 따라 차례로 진행되더라도, 뮤텍스가 없으면 다른 스레드의 동작이 임의의 방식으로 뒤섞일 가능성이 있다. 다른 스레드가 실행 중에 데이터를 수정하더라도 작동하는 코드를 작성한다고 생각해 보자. 또 그걸 디버깅한다고 생각해 보자. 아마 프로그램이 귀신에 쓴 게 아닐까 싶을 것이다.
 - 뮤텍스는 **불변성.Invariant**, 즉 보호되는 데이터가 만족해야 하는 규칙이 있는 프로그래밍을 지원한다. 이 규칙은 데이터를 생성할 때 부여해서 항상 **임계 영역(Critical Section)**으로 유지하고 관리한다.

뮤텍스란?

SNU SCSC + WaffleStudio 스터디
Week 9: Concurrency, Part 2

- 하지만 대부분의 언어에서 뮤텍스는 엉망진창이 되기 쉽다.
 - C++에서는 대부분의 언어와 마찬가지로 데이터와 락이 별개의 객체다. 이론적으로 “모든 스레드는 데이터를 건드리기 전에 반드시 뮤텍스를 획득하세요”라고 주석으로 남겨 두는 것 외에는 이를 제대로 설명할 방법이 없다.
 - 그러나 아무리 주석을 잘 남겨 둬도 컴파일러는 안전한 접근을 강제할 수 없다. 일부 코드에서 깜빡하고 뮤텍스를 획득하지 않으면 정의되지 않은 동작이 발생한다. 실제로 이 말은 재현하고 고치기가 극도로 어려운 버그란 뜻이다.

```
● ● ●

class FernEmpireApp
{
    // ...

private:
    // List of players waiting to join a game. Protected by `mutex`
    vector<PlayerId> waitingList;

    // Lock to acquire before reading or writing `waitingList`
    Mutex mutex;

    // ...
};
```

- 이제 Rust로 구현한 대기자 목록을 살펴 보자.
 - FernEmpire 게임의 서버에서는 각 플레이어가 고유한 ID를 갖는다.

```
● ● ●  
type PlayerId = u32;
```

- 대기자 명단은 플레이어의 컬렉션에 불과하다.

```
● ● ●  
const GAME_SIZE: usize = 8;  
  
// A waiting list never grows to more than GAME_SIZE players  
type WaitingList = Vec<PlayerId>;
```

- 이제 Rust로 구현한 대기자 목록을 살펴 보자.
 - 대기자 명단은 FernEmpireApp의 필드로 저장된다.
FernEmpireApp은 서버가 시작하는 과정에서 Arc 안에 생성되는 싱글톤이다.
각 스레드는 이를 가리키는 Arc를 갖는다.
여기에는 공유된 구성을 비롯해 프로그램이 필요로 하는 온갖 잡동사니가 전부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은 읽기 전용이다.
대기자 명단은 변경할 수 있는 채로 공유되기 때문에 반드시 Mutex로 보호해야 한다.

```
use std::sync::Arc;

let app = Arc::new(FernEmpireApp {
    // ...
    waiting_list: Mutex::new(vec![]),
    // ...
});
```

- C++와 달리 Rust는 보호할 데이터가 Mutex 안에 저장된다.
 - Mutex를 생성하는 건 Box나 Arc를 생성하는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Box와 Arc는 힙 할당을 의미하는 반면 Mutex는 오로지 락에 관한 것이다. Mutex를 힙에 할당하고 싶다면 그렇게 요구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전체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Arc::new를 쓰고 보호할 데이터에 대해서만 Mutex::new를 쓴다. 이들 타입은 같이 쓰일 때가 많은데 Arc는 스레드 간에 뭔가를 공유할 때 유용하고, Mutex는 스레드 간에 공유된 변경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을 때 유용하다.

- 이제 join_waiting_list 메소드를 Mutex를 써서 구현해 보자.

```
● ● ●

impl FernEmpireApp {
    /// Add a player to the waiting list for the next game
    /// Start a new game immediately if enough players are waiting
    fn join_waiting_list(&self, player: PlayerId) {
        // Lock the mutex and gain access to the data inside
        // The scope of `guard` is a critical section
        let mut guard = self.waiting_list.lock().unwrap();

        // Now do the game logic
        guard.push(player);

        if guard.len() == GAME_SIZE {
            let players = guard.split_off(0);
            self.start_game(players);
        }
    }
}
```

mut와 Mutex

SNU SCSC + WaffleStudio 스터디
Week 9: Concurrency, Part 2

- join_waiting_list 메소드를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
 - 이 메소드의 첫 번째 매개 변수는 &mut self가 아닌 &self이다.

```
● ● ●  
let mut guard = self.waiting_list.lock().unwrap();
```

- Vec<PlayerId> 타입에 대해 push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다. 이 메소드는 &mut self를 요구한다.
- 그런데 앞의 코드는 컴파일도 되고 실행도 된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
● ● ●  
  
if guard.len() == GAME_SIZE {  
    let players = guard.split_off(0);  
  
    // Don't keep the list locked while starting a game  
    drop(guard);  
  
    self.start_game(players);  
}
```

- Rust에서 `&mut`는 **배타적 접근(Exclusive Access)**을 의미하고, `&`는 **공유된 접근(Shared Access)**을 의미한다.
- 우리는 부모에서 자식으로, 또 컨테이너에서 요소로 `&mut` 접근 권한을 넘기는 방식에 익숙하다. 그러나 보니 이를테면 발사할 `starships`의 `&mut` 레퍼런스를 손에 쥐고 있을 때만 `starships[id].engine`에 대고 `&mut self`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다고 여긴다. Rust는 일반적으로 부모에 대한 배타적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식에 대한 배타적 접근 권한을 가지게 만들 방법이 없으므로 이 익숙한 방식을 기본 동작으로 삼는다.
- 그러나 Mutex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데, 락이 바로 그것이다. 사실 뮤텍스는 많은 스레드가 Mutex 자체에 대한 공유된(`mut`가 아닌) 접근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락을 써서 자기가 가진 데이터에 대한 배타적(`mut`)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 Rust의 타입 시스템은 Mutex가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해 준다. Mutex는 일반적으로 Rust 컴파일러가 컴파일 시점에 정적으로 시행하는 배타적 접근 규칙을 동적으로 처리한다.

뮤텍스만 고집하는 그대에게

SNU SCSC + WaffleStudio 스터디
Week 9: Concurrency, Part 2

- 앞서 우리는 뮤텍스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동시성에 관한 몇 가지 접근 방식을 살펴봤었다.
 - C++에서 넘어온 사람이라면 접근 방식들이 이상하리만큼 쓰기도 쉽고 실수할 여지도 적어 보였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우연이 아니다. 이들은 동시성 프로그래밍의 가장 혼란스러운 측면에 맞서 강력한 보장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 Fork-Join 병렬 처리만 쓰는 프로그램은 결정성(Deterministic)을 띠며,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없다. 채널을 쓰는 프로그램은 거의 다 잘 작동한다.
 - 앞서 봤던 색인 작성기처럼 채널을 파이프라인 구축에만 쓰는 프로그램은 결정성을 띤다. 즉, 메시지 전달 타이밍은 다를 수 있어도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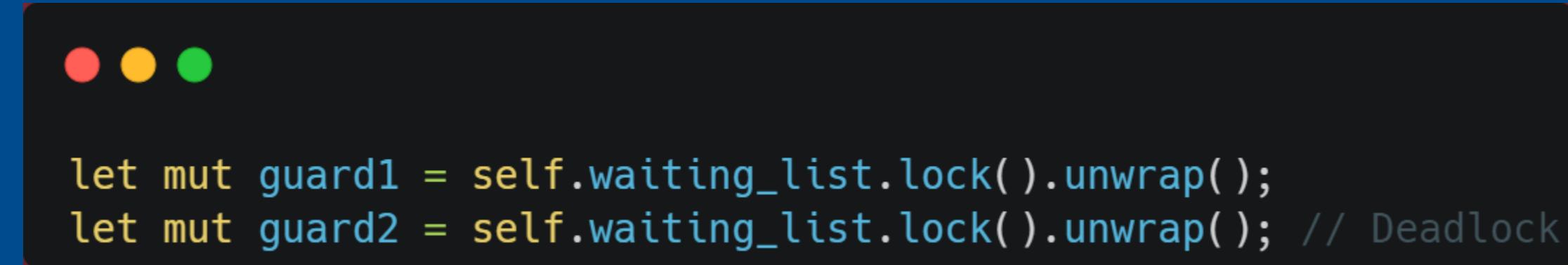
뮤텍스만 고집하는 그대에게

SNU SCSC + WaffleStudio 스터디
Week 9: Concurrency, Part 2

- 앞서 우리는 뮤텍스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동시성에 관한 몇 가지 접근 방식을 살펴봤었다.
 - Rust의 Mutex가 전보다 뮤텍스를 더 체계적이고 현명하게 쓸 수 있도록 설계된 건 거의 확실하다. 그러나 잠시 멈춰서서 Rust의 안전성 보장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두고 한 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다.
 - 안전한 Rust 코드는 데이터 경합(Data Race), 즉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같은 메모리를 읽고 쓰는 바람에 무의미한 결과를 산출하는 이런 유형의 버그를 유발할 수 없다. 데이터 경합이 늘 버그를 유발한다는 점과 실제로 멀티 스레드 프로그램에서 드물지 않게 있는 일이란 걸 감안할 때 그 점은 아주 훌륭하다고 볼 수 있다.

- 뮤텍스를 쓰는 스레드는 Rust가 대신 해결해 주지 않는 다른 몇 가지 문제에 휩싸이기 쉽다.
 - 유효한 Rust 프로그램에는 데이터 경합이 있을 수 없지만 여전히 다른 **경합 조건(Race Condition)**, 즉 프로그램의 동작이 스레드 간의 타이밍에 따라 달라지는 바람에 실행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어떤 경합 조건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만한 수준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결과가 매번 제멋대로라 아주 고치기 힘든 버그가 되기도 한다. 뮤텍스를 구조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쓰면 경합 조건이 생긴다. 이걸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만한 수준으로 만드는 건 여러분의 몫이다.
 - 변경할 수 있는 공유된 상태 역시 프로그램 설계에 영향을 미친다. 채널은 코드에서 추상의 경계로 작용하기 때문에 테스트를 위해서 격리된 구성 요소로 분리하기가 쉬운 반면, 뮤텍스는 “그냥 메소드 하나 더 넣지 뭐” 식의 해결책을 부추기기 때문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코드들이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
 - 끝으로 뮤텍스는 첫인상과 달리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은데, 이건 지금부터 살펴 보려고 한다.

- 스레드가 자신이 이미 쥐고 있는 락을 획득하려 들면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



A screenshot of a terminal window with three colored dots (red, yellow, green) at the top. The terminal displays the following Rust code:

```
let mut guard1 = self.waiting_list.lock().unwrap();
let mut guard2 = self.waiting_list.lock().unwrap(); // Deadlock
```

- 첫 번째 `self.waiting_list.lock()` 호출이 락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자.
이때 두 번째 호출은 누군가 이미 락을 획득해 있다고 판단하고, 락 해제가 일어날 때까지 대기 중인 채로 블록된다.
그런데 여기서 락을 획득한 장본인이 바로 대기 중인 스레드 자신이라서 이 기다림의 끝은 영영 오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Mutex의 락은 재귀 락이 아니다.
- 앞의 코드는 누가 봐도 버그다.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서로 다른 두 메소드가 각자 `lock()` 호출을 포함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호출할 때 이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문제는 각 메소드의 코드만 따로 놓고 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발견하기 쉽지 않다. 이외에도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여러 뮤텍스를 획득하려는 경우를 포함해서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조건은 더 있다. Rust의 빌림 시스템은 교착 상태를 막을 수 없다.
최선의 예방책은 임계 영역을 작게 가져가는 것이다. 즉, 임계 영역에 들어가면 필요한 일만 하고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

- 스레드가 자신이 이미 주고 있는 락을 획득하려 들면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
 - 채널을 쓸 때도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두 스레드가 상대방에게서 오는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으면 бл록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프로그램의 설계를 좋게 가져가면 사실상 높은 확률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앞서 봤던 역색인 작성기 같은 파이프라인에서는 데이터의 흐름이 비순환적이다. 이런 프로그램은 Unix 셸 파이프라인처럼 작동하기 때문에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 Mutex::lock()은 JoinHandle::join()과 같은 이유로, 즉 다른 스레드가 패닉에 빠졌을 때 실패를 매끄럽게 처리하기 위해서 Result를 반환한다.
 - handle.join().unwrap()이라고 쓰면 Rust에게 한 스레드의 패닉을 다른 스레드로 전파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mutex.join().unwrap()도 마찬가지다.
- 스레드가 Mutex를 획득한 상태에서 패닉에 빠지면 Rust는 그 Mutex를 오염되었다(Poisoned)고 표시한다.
 - 이 오염된 Mutex에 대고 lock을 호출하면 Result가 Err로 반환된다.
 - 이 뒤에 오는 .unwrap() 호출은 Rust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패닉에 빠지라고 말하는 것이다.
 - 따라서 다른 스레드의 패닉이 이쪽으로 전파된다.

- 오염된 뮤텍스가 생기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 오염이란 말이 위험하게 들리긴 해도 이 시나리오가 꼭 치명적인 것만은 아니다. 패닉은 안전하다. 한 스레드가 패닉에 빠지더라도 프로그램의 나머지 부분은 안전한 상태로 유지된다.
 - 패닉에 빠질 때 뮤텍스가 오염되는 이유는 정의되지 않은 동작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기보다는, 불변성.Invariant)을 이용해 프로그래밍해왔을 여러분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 프로그램이 임계 영역에서 패닉에 빠지는 바람에 하던 일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로 빠져나오면, 보호된 데이터의 필드 일부를 제대로 업데이트하지 못하면서 불변성을 깨뜨릴 가능성이 있다.
 - 따라서 Rust는 뮤텍스를 오염시켜서 다른 스레드가 자신도 모르게 문제의 영역으로 들어와 일을 더 악화시키는 걸 막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배제를 완벽히 유지한 채로 오염된 뮤텍스를 잠그고 안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문서에 있는 `PoisonError::into_inner()`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자.

뮤텍스를 이용한 멀티 컨슈머 채널

SNU SCSC + WaffleStudio 스터디
Week 9: Concurrency, Part 2

- 앞서 우리는 Rust의 채널이 멀티 프로듀서, 싱글 컨슈머라고 언급한 바 있다.
 -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채널에는 Receiver가 하나 뿐이다.
여러 스레드가 `mpsc` 채널 하나를 공유된 작업 목록으로 쓰는 스레드 풀은 있을 수 없다.

뮤텍스를 이용한 멀티 컨슈머 채널

SNU SCSC + WaffleStudio 스터디
Week 9: Concurrency, Part 2

- 앞서 우리는 Rust의 채널이 멀티 프로듀서, 싱글 컨슈머라고 언급한 바 있다.
- 하지만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기능만으로 만들어 쓸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우회책이 있다.
Receiver를 Mutex로 감싸서 공유해 쓰는 것이다.



```
pub mod shared_channel {
    use std::sync::mpsc::{channel, Receiver, Sender};
    use std::sync::{Arc, Mutex};

    // A thread-safe wrapper around a `Receiver`
    #[derive(Clone)]
    pub struct SharedReceiver<T>(Arc<Mutex<Receiver<T>>>);

    impl<T> Iterator for SharedReceiver<T> {
        type Item = 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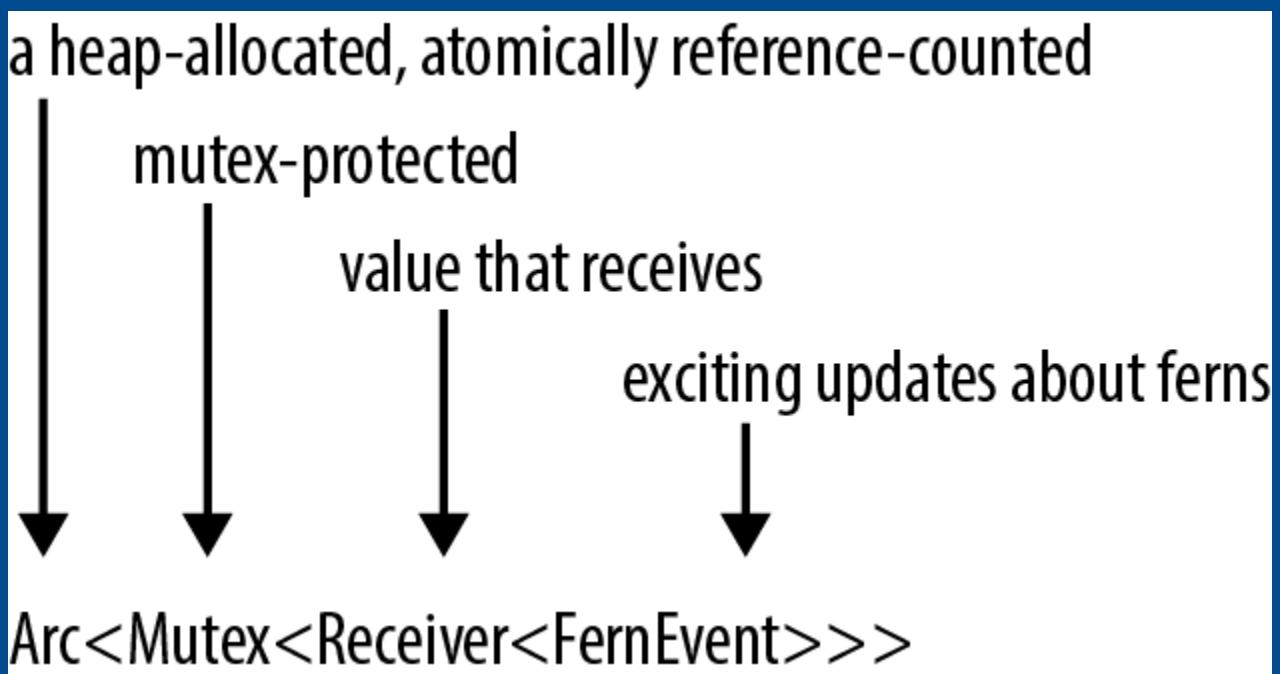
        // Get the next item from the wrapped receiver
        fn next(&mut self) -> Option<T> {
            let guard = self.0.lock().unwrap();
            guard.recv().ok()
        }
    }

    // Create a new channel whose receiver can be shared across threads
    // This returns a sender and a receiver, just like the stdlib's `channel()`,
    // and sometimes works as a drop-in replacement
    pub fn shared_channel<T>() -> (Sender<T>, SharedReceiver<T>) {
        let (sender, receiver) = channel();
        (sender, SharedReceiver(Arc::new(Mutex::new(receiver))))
    }
}
```

뮤텍스를 이용한 멀티 컨슈머 채널

SNU SCSC + WaffleStudio 스터디
Week 9: Concurrency, Part 2

- 앞서 우리는 Rust의 채널이 멀티 프로듀서, 싱글 컨슈머라고 언급한 바 있다.
 - 하지만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기능만으로 만들어 쓸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우회책이 있다.
Receiver를 Mutex로 감싸서 공유해 쓰는 것이다.



- 서버 프로그램은 한 번 읽어오면 거의 바뀔 일이 없는 구성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다.
 - 대부분의 스레드는 구성을 조회하는 데 그치겠지만 구성이 바뀔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반드시 락을 써서 보호해야 한다.
 - 예를 들어, 서버에게 디스크에 있는 구성을 다시 읽어오라고 요청하면 이미 읽어 온 구성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 뮤텍스는 이런 경우에도 통하지만 불필요한 병목을 만든다. 스레드가 구성을 바꾸지 않고 조회하기만 한다면 굳이 줄을 세워 관리할 이유가 없다.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바로 읽기/쓰기 락, 즉 RwLock이다.
- 뮤텍스는 lock 메소드만 가지고 있는 반면, 읽기/쓰기 락은 read와 write 메소드가 있다.
 - RwLock::write는 Mutex::lock과 비슷한 메소드로 보호된 데이터의 배타적 mut 접근을 기다린다.
 - RwLock::read는 mut가 아닌 접근을 제공하는 메소드로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읽어도 안전하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가 거의 없다는 이점이 있다.
 - 뮤텍스를 쓰면 보호된 데이터가 임의의 순간에 가질 수 있는 Reader나 Writer가 (아예 없거나) 하나 뿐이다. 반면 읽기/쓰기 락을 쓰면 일반적인 Rust 레퍼런스처럼 Writer 하나를 갖거나 Reader 여럿을 갖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읽기/쓰기 락 (RwLock<T>)

SNU SCSC + WaffleStudio 스터디
Week 9: Concurrency, Part 2

- 이제 FernEmpireApp에 RwLock으로 보호되는 구성을 위한 구조체를 넣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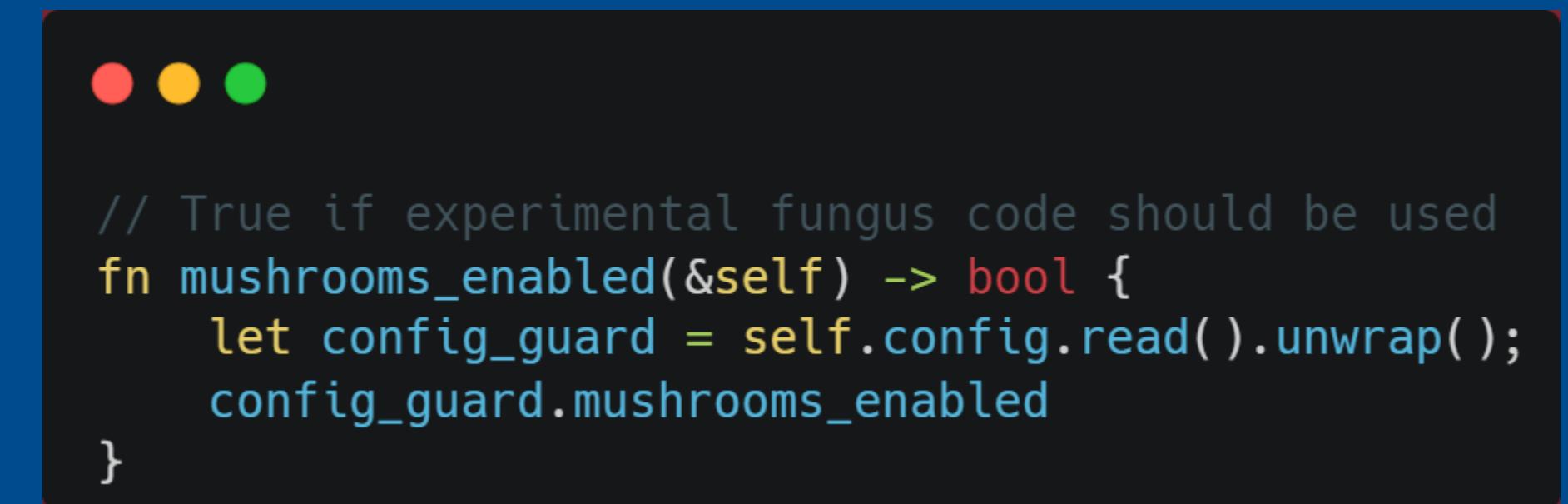
```
use std::sync::RwLock;

struct FernEmpireApp {
    ...
    config: RwLock<AppConfig>,
    ...
}
```

읽기/쓰기 락 (RwLock<T>)

SNU SCSC + WaffleStudio 스터디
Week 9: Concurrency, Part 2

- 이제 FernEmpireApp에 RwLock으로 보호되는 구성을 위한 구조체를 넣어 보자.
- 구성을 읽는 메소드는 RwLock::read()를 쓴다.



```
// True if experimental fungus code should be used
fn mushrooms_enabled(&self) -> bool {
    let config_guard = self.config.read().unwrap();
    config_guard.mushrooms_enabled
}
```

읽기/쓰기 락 (RwLock<T>)

SNU SCSC + WaffleStudio 스터디
Week 9: Concurrency, Part 2

- 이제 FernEmpireApp에 RwLock으로 보호되는 구성을 위한 구조체를 넣어 보자.
- 구성을 다시 읽는 메소드는 RwLock::write()를 쓴다.



```
fn reload_config(&self) -> io::Result<()> {
    let new_config = AppConfig::load()?;
    let mut config_guard = self.config.write().unwrap();
    *config_guard = new_config;
    Ok(())
}
```

A screenshot of a terminal window with three colored window control buttons (red, yellow, green) at the top. The main area contains a block of Rust code. The code defines a function `reload_config` that takes a reference to a struct `self`. It returns a `io::Result<()>`. Inside the function, it loads a new configuration from `AppConfig::load()`, creates a mutable guard over the `config` field of `self` using `write().unwrap()`, updates the guard with the new configuration, and finally returns `Ok(())`.

조건 변수 (Condvar)

SNU SCSC + WaffleStudio 스터디
Week 9: Concurrency, Part 2

- 스레드는 특정 조건이 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 서버가 종료하는 과정에서 메인 스레드는 다른 스레드가 전부 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다.
 - 워커 스레드가 할 일이 없을 때는 처리할 데이터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분산 합의 프로토콜을 구현하고 있는 스레드는 응답한 피어(Peer) 수가 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다.
- 정확히 원하는 조건을 기다리는 편리한 블로킹 API가 이미 마련되어 있을 때도 있다.
 - 이를테면 앞서 예로 든 서버가 종료하는 과정에서는 그냥 `JoinHandle::join`을 쓰면 된다.

조건 변수 (Condvar)

SNU SCSC + WaffleStudio 스터디
Week 9: Concurrency, Part 2

- 그러나 기본 제공 블로킹 API가 없을 때는 **조건 변수(Condition Variable)**를 써서 프로그램 안에 직접 원하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
 - Rust에서는 `std::sync::Condvar` 타입이 조건 변수를 구현하고 있다.
 - Condvar에는 `.wait()`와 `.notify_all()` 메소드가 있다.
`.wait()`는 다른 스레드가 `.notify_all()`을 호출할 때까지 블록된다.
 - 이외에도 특정 Mutex가 보호하는 데이터에 관한 참 또는 거짓 조건을 다루기 위한 것이다 보니, Mutex와 Condvar가 서로 관련이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조건 변수 (Condvar)

SNU SCSC + WaffleStudio 스터디
Week 9: Concurrency, Part 2

- 조건 변수를 써본 적이 있는 프로그래머들을 위해서 핵심 코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
- 원하는 조건이 참이 되면 `Condvar::notify_all`(또는 `notify_one`)을 호출해서 대기 중인 스레드를 전부 깨운다.

```
● ● ●  
self.has_data_condvar.notify_all();
```

- 조건이 참이 될 때까지 잠든 채로 대기하려면 `Condvar::wait()`를 쓴다.

```
● ● ●  
while !guard.has_data() {  
    guard = self.has_data_condvar.wait(guard).unwrap();  
}
```

- `std::sync::atomic` 모듈에는 락이 없는 동시성 프로그래밍을 위한 원자적 타입이 포함되어 있다.
 - 일부 추가 기능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표준 C++ 원자성 지원과 동일하다.
 - `AtomicIsize`와 `AtomicUsize`는 싱글 스레드 타입 `isize`와 `usize`에 해당하는 공유된 정수 타입이다.
 - `AtomicI8`, `AtomicI16`, `AtomicI32`, `AtomicI64`를 비롯해서 `AtomicU8`과 같은 이들의 부호 없는 버전은 싱글 스레드 타입 `i8`과 `i16` 등에 해당하는 공유된 정수 타입이다.
 - `AtomicBool`은 공유된 `bool` 값이다.
 - `AtomicPtr<T>`는 안전하지 않은 포인터 타입 `*mut T`의 공유된 값이다.

- 원자적 타입은 평범한 산술과 논리 연산자가 아니라 **원자적 연산(Atomic Operation)**을 수행하는 메소드를 사용한다.
- 여기에는 각기 다른 로드, 스토어, 익스체인지지를 비롯해서 다른 스레드가 같은 메모리 위치를 건드리는 원자적 연산을 수행하더라도 하나의 단위로 안전하게 처리되는 산술 연산이 포함된다.
- 예를 들어, atom이라는 이름의 AtomicIsize를 증가시키려면 다음처럼 하면 된다.

```
● ● ●  
use std::sync::atomic::{AtomicIsize, Ordering};  
  
let atom = AtomicIsize::new(0);  
atom.fetch_add(1, Ordering::SeqCst);
```

- 이 메소드들은 특화된 기계어 명령으로 컴파일된다. x86-64 아키텍처에서 .fetch_add() 호출은 lock incq 명령으로 컴파일되는 반면, n += 1은 평범한 incq 명령이나 같은 일을 하는 다른 변형으로 컴파일된다. 또 일반적인 로드나 스토어와 달리 이들은 합법적으로 다른 스레드와 그때그때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Rust 컴파일러는 원자적 연산을 둘러싼 최적화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

- 인수 `Ordering::SeqCst`는 메모리 순서(Memory Order)를 지정한다.
 - 메모리 순서는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 격리 수준과 비슷하다.
이런 것들은 성능과는 별개로 결과보다 원인을 중시하고 반복 없는 시간을 추구하는 등의 철학적 개념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를 시스템에게 말해 준다.
 - 메모리 순서는 프로그램의 정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이해하기 어렵고 추론하기 까다롭다.
다행인 건 SQL 데이터베이스를 SERIALIZABLE 모드로 쓸 때 벌어지는 성능 저하와 달리,
가장 엄격한 메모리 순서인 순차적 일관성을 고르더라도 성능 저하가 적을 때가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멀 써야 좋을지 모를 때는 그냥 `Ordering::SeqCst`를 쓰면 된다.
 - Rust는 표준 C++ 동시성 지원이 가진 다른 여러 메모리 순서를 물려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https://en.cppreference.com/w/cpp/atomic/memory_order을 참고하자.

- 원자성의 쉬운 예로 취소가 있다.
 - 예를 들어, 비디오 렌더링과 같이 오래 걸리는 계산을 수행하는 스레드가 있는데 이를 비동기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만들고 싶다고 하자.
 - 문제는 종료시킬 스레드와 어떤 식으로 통신해야 좋을지 모른다는 건데, 이럴 때 공유된 `AtomicBool`을 쓰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
● ● ●  
  
use std::sync::Arc;  
use std::sync::atomic::AtomicBool;  
  
let cancel_flag = Arc::new(AtomicBool::new(false));  
let worker_cancel_flag = cancel_flag.clone();
```

- 위 코드는 초기값이 `false`인 `AtomicBool`을 힙에 할당하고, 이를 가리키는 두 개의 `Arc<AtomicBool>` 스마트 포인터를 만든다. `cancel_flag`라고 된 첫 번째 스마트 포인터는 메인 스레드에 머물고, `worker_cancel_flag`라고 된 두 번째 스마트 포인터는 워커 스레드로 이동한다.

- 워커의 스레드는 다음과 같다.

```
● ● ●

use std::sync::atomic::Ordering;
use std::thread;

let worker_handle = thread::spawn(move || {
    for pixel in animation.pixels_mut() {
        // Ray-tracing - this takes a few microseconds
        render(pixel);

        if worker_cancel_flag.load(Ordering::SeqCst) {
            return None;
        }
    }

    Some(animation)
});
```

- 메인 스레드가 워커 스레드를 취소하기로 결정하면 `AtomicBool`에 `true`를 저장하고 스레드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린다.

```
● ● ●  
// Cancel rendering  
cancel_flag.store(true, Ordering::SeqCst);  
  
// Discard the result, which is probably `None`  
worker_handle.join().unwrap();
```

- 네트워킹 코드를 작성 중이라고 하자.
여기에 패킷을 처리할 때마다 값이 증가하는 카운터를 전역 변수로 두려고 한다.
- 아래 코드는 잘 컴파일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
PACKETS_SERVED가 변경할 수 있게 선언되어 있지 않아서 값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거다.

```
● ● ●  
// Number of packets the server has successfully handled  
static PACKETS_SERVED: usize = 0;
```

- 네트워킹 코드를 작성 중이라고 하자.

여기에 패킷을 처리할 때마다 값이 증가하는 카운터를 전역 변수로 두려고 한다.

- Rust는 변경할 수 있는 전역 상태를 막기 위해서라면 합리적인 선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물론, `const`로 선언하는 상수는 변경할 수 없다. 정적 변수 역시 기본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를 참조하는 `mut` 레퍼런스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다. `static`은 `mut`로 선언할 수 있지만, 이를 접근하는 건 안전하지 않다. 이러한 규칙이 생겨난 배경에는 스레드 안전성에 관한 Rust의 고집이 자리하고 있다.
- 또 변경할 수 있는 전역 상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데, 프로그램의 다양한 부분이 점점 더 단단하게 결합되는 경향이 생기면서 테스트하기도 어렵고, 뭔가를 바꾸기도 까다롭게 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합리적인 대안이 없을 때도 있어서 변경할 수 없는 정적 변수를 선언하는 안전한 방법을 찾는 게 더 낫다.

- PACKET_SERVED의 값을 증가시킬 수 있게 지원하면서도 스레드 안전성을 잃지 않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이를 원자적 정수로 만드는 것이다.

```
● ● ●  
use std::sync::atomic::AtomicUsize;  
  
static PACKET_SERVED: AtomicUsize = AtomicUsize::new(0);
```

- 이런 식으로 전역 변수를 선언하고 나면 패킷 카운트를 올리는 건 간단하다.

```
● ● ●  
use std::sync::atomic::Ordering;  
  
PACKETS_SERVED.fetch_add(1, Ordering::SeqCst);
```

- 원자적 전역 변수는 단순한 정수와 bool로 제한된다.
이외의 다른 타입으로 된 전역 변수를 만들면 두 가지 문제를 풀어야 한다.
- 첫 번째로 변수가 어떻게든 스레드 안전성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역 변수가 될 수 없다.
정적 변수가 안전성을 가지려면 Sync이면서 mut가 아니어야 한다. 다행히도 이 문제의 해결책은 이미 알고 있다.
Rust에는 바뀌는 값을 안전하게 공유하기 위한 타입이 있는데, Mutex, RwLock, 원자적 타입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타입은 mut가 아닌 타입으로 선언해도 수정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그들의 일이다.

- 원자적 전역 변수는 단순한 정수와 `bool`로 제한된다.
이외의 다른 타입으로 된 전역 변수를 만들면 두 가지 문제를 풀어야 한다.
 - 두 번째로 `static`을 초기화하는 코드는 특별히 `const`로 표시된 함수만 호출할 수 있다.
이런 함수는 컴파일러가 컴파일 과정에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결정성을 띠고
다른 상태나 I/O가 아니라 주어진 인수에만 의존한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컴파일러가 이런 식으로 해당 계산의 결과를 컴파일 시점 상수로 끄워 넣을 수 있다.
`C++`의 `constexpr`이 비슷한 기능을 한다.
 - `Atomic` 타입의 생성자는 모두 `const` 함수다. 앞에서 `AtomicUsize`를 `static`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String`, `Ipv4Addr`, `Ipv6Addr` 같은 일부 타입에도 간단한 `const` 생성자가 있다.

- 나만의 const 함수를 정의할 수도 있는데, 함수의 시그니처 앞에 const를 붙이면 된다.
 - Rust는 const 함수가 할 수 있는 작업의 규모를 작게 제한해 두고 있는데, 이들 작업은 결과가 비결정성을 띠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유용하다.
 - const 함수는 제네릭 인수로 수명만 받을 수 있고, 타입은 받을 수 없으며, unsafe 블록 안이라고 해도 메모리를 할당하거나 원시 포인터를 쓰는 작업은 할 수 없다.
 - 하지만 산술 연산, Short-circuit Evaluation이 없는 논리 연산, 다른 const 함수를 쓸 순 있다.

- 나만의 `const` 함수를 정의할 수도 있는데, 함수의 시그니처 앞에 `const`를 붙이면 된다.
 - 예를 들어, 다음 예제처럼 `static`과 `const`를 손쉽게 정의하게 해서 코드 중복을 줄이는 편리한 함수를 만들 수 있다.

```
● ● ●

const fn mono_to_rgba(level: u8) -> Color {
    Color {
        red: level,
        green: level,
        blue: level,
        alpha: 0xFF,
    }
}

const WHITE: Color = mono_to_rgba(255);
const BLACK: Color = mono_to_rgba(000);
```

- 이런 기법을 엮어서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작성하고 싶을 수 있다.

```
// Error: Calls in statics are limited to constant functions,  
//        tuple structs, and tuple variants  
static HOSTNAME: Mutex<String> = Mutex::new(String::new());
```

- 안타깝게도 `AtomicUsize::new()`와 `String::new()`는 `const fn`이지만 `Mutex::new()`는 아니다.
이런 제한을 피해 가려면 `lazy_static` 크레이트를 써야 한다.

- `lazy_static!`을 쓰면 정적 데이터에 접근할 때마다 약간의 성능 비용이 발생한다.
 - 왜냐하면 해당 구현이 일회성 초기화를 위해 설계된 저수준 동기화 기본 요소인 `std::sync::Once`를 쓰기 때문이다.
 - 접근할 때마다 프로그램은 이면에서 초기화가 이미 진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원자적 로드 명령을 실행한다.

```
use lazy_static::lazy_static;
use std::sync::Mutex;

lazy_static! {
    static ref HOSTNAME: Mutex<String> = Mutex::new(String::new());
}
```

- <https://www.rust-lang.org/>
- <https://doc.rust-lang.org/book/>
- <https://tourofrust.com/>
- The Rust Programming Language (No Starch Press, 2019)
- Programming Rust, 2nd Edition (O'Reilly, 2021)

Thank you!